

# KIA 상승세 '이범호 효과'

'이범호 효과'로 KIA 타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KIA는 든든한 선발진에 비해 타선의 힘이 떨어지면서 '투고타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우승을 차지했던 2009년에도 김상현·최희섭의 한방전쟁이 벌어졌지만 팀 타율은 0.267로 전체 꼴찌, 장타율·출루율도 4·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V11 도전하는 올 시즌 '투고타저'는 다른 팀 얘기가 됐다. 개막과 함께 불방망이를 선보인 KIA는 팀 타율은 물론 장타율·출루율·타점·득점·홈런 등 타격 부문 1위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

확 달라진 타격의 중심에는 3번 타자 이범호가 있다.

KIA의 가장 큰 고민은 3번 타자의 부재였다. 조범현 감독은 지난해 나지완·안치홍·김원섭 등을 투입하며 3번 타자 물색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 팀 타격의 중심 '3번' 역할 톡톡 집중력 높은 무결점 수비 돋보여

지난 겨울 극적으로 이범호 영입에 성공한 KIA는 이범호에게 3번 타자의 임무를 부여했다.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뒤늦게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이범호는 지난해 일본 무대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도 훈련 부족으로 우려의 시선을 받았다. 캠프가 끝난 뒤에도 커진 스윙을 간결하게 고치기 위해 따로 타격훈련을 소화하는 등 새 유니폼 적응에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실전 무대에 나선 이범호는 국가대표 3루수다운 공격과 수비로 팀 타선의 중심에 섰다.

개막 두 경기만에 결승타의 주인공이 된 이범호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타격으로 알짜배기 타점을 쓸어들고 있다. 김상현·최희섭의 방망이가 주춤한 사이 시원한 한방으로 팬들의 갈증도 해소해주었다.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큰 기복을 보이지 않는 것도 강점이다.

이범호는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다 싶으면 더 집중력 있게 승부를 하려고 한다"며 "끈질긴 승부로 안타를 만들면 여유가 생겨서 빨리 페이스를 찾게 된다"고 꾸준함의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규·김성민 '테이블 세터진'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이범호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있다.



타격은 '범'



수비는 '虎'

집중력을 앞세운 무결점 수비도 돋보인다. 핫코너를 지키고 있는 이범호는 실책 없이 투수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하면서 공·수에서 KIA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범호 효과'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국가대표다운 노련수와 승부가 선수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지완은 "범호형이 투수와의 수싸움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또 타선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쎄돌' 이세돌 춘란배 우승

을 세계대회 2관왕

이세돌이 접전 끝에 '천적' 세하를 물리치고 올해 세계대회 2관왕에 올랐다.

'쎄돌' 이세돌은 30일 중국 충칭 크라운홀리데이 호텔 특설대국실에서 열린 '제8회 춘란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 3번기 최종국에서 중국의 세하 7단을 맞아 백으로 214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1국에서 접전 끝에 신승한 후 전날 대국에서 1패를 내준 이세돌은 이로써 최종스코어 2-1로 춘란배 8번째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4월에 구리 9단을 꺾고 비씨카드배 우승을 차지한 후 두 달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른 이세돌은 세계대회 15회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23회의 이창호 9단에 이은 통산 2위 기록이다. 중국선수를 상대로는 9번째 우승이다.

통산 19차례의 세계대회결승에 올랐던 이세돌은 79%의 우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세돌은 화려한 공격력과 자유자재의 변신으로 대변되는 '이세돌표 바둑'을 선보이며 세하와의 통산전적을 3승5패로 만들었다.

/연합뉴스

# 월드리그 배구 14위뎀

## 내년 본선 탈락 할수도

지진 피해 일본에 자동출전권

국제배구연맹(FIVB)이 일본을 과도하게 배려하면서 한국의 내년 시즌 월드컵 본선 진출에 예기치 않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대한배구협회는 "29일 FIVB로부터 '일본에 내년 시즌 본선 자동 출전권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까지 팀당 1~2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전체 16개 참가국 가운데 15위에 머물러 있는 일본을 예선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내년 시즌에도 본선 리그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FIVB는 일본이 이번 월드컵에서 홈 경기를 전혀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점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달 3월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나는 등 상황이 불안정해 다른 나라 팀들이 원정 경기를 꺼린 탓에 올해 홈에서 한 경기도 치르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에 혜택을 주면 다른 팀이 탈락하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월드리그는 16개 팀이 본선 리그를 벌여 하위 두 팀이 예선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본은 30일까지 승점 4점으로 15위에 머물러 있다.

FIVB는 일본을 제외한 15개 팀 중에서 14, 15위 팀을 예선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연히 본선 출전권을 보장받으리라 생각했던 14위 팀이 졸지에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한국에도 불똥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승점 10점으로 전체 11위에 올라 있지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14위까지 내려갈 수 있다.

/연합뉴스

# U-20 월드컵 축구 대표 30명 확정

## '광양 루니' 이종호 공격 이끈다

지동원·손흥민은 제외

대한축구협회가 2011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7월29~8월20일·콜롬비아)에 나설 30명의 대표선수 예비명단을 확정했다.

축구협회는 30일 "이광종 감독이 제출한 30명의 예비명단을 FIFA에 접수했다"며 "7월4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하는 소집훈련과 미국 전지훈련을 통해 21명의 최종명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 가운데는 최근 네덜란드 프로축구 흐로닝언으로 이적한 공격수 석현준을 비롯해 프랑스리그에서 뛰는 남태희(발랑시엔)와 이용재(낭트), 일본에서 활약하는 김선민(돗토리) 등 4명의 해외파 선수가 눈에 띈다.

전남 드래곤즈의 투기 '광양 루니' 이종호는 포워드로, 김영욱은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로 이적한 지동원과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소속의 공격수 손흥민은 제외됐다.

이광종 감독은 지동원이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에 모두 포함돼 U-20 월드컵까지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손흥민은 구단에서 차출을 반대했다.

대표팀은 7월4일 파주NFC에서 2주 정도 훈련을 하고 나서 7월17일부터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전지훈련을 치를 예정이다.

대회가 열리는 콜롬비아의 보고타가 해발 2600m의 고지대여서 해발 1600m인 덴버에서 고지적응훈련에 나서기로 했다.

U-20 월드컵 본선에서 개최국인 콜롬비아, 프랑스, 말리와 함께 A조에 속한 한국은 7월31일 오전 8시(한국시간) 말리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김동현 UFC 동양인 최초 6연승 도전



김동현

웰터급 강자 콘디트와 격돌

승리 뎀 타이틀전에 '바짝'

'스텐 건' 김동현(30)이 미국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에서 동양인 최초로 6연승에 도전한다.

김동현은 7월 3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아레나에서 열리는 UFC 132에서 웰터급 강자 카를로스 콘디트(27·미국)와 격돌한다.

김동현은 2008년 5월 한국인 최초로 UFC에 진출해 무패 행진을 하며 한국 격투계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UFC 84에서 제이슨 탄에 TKO 승을 거둔 데 이어 같은 해 9월 UFC 88에서 맷 브라운을 판정승으로 제압했다. 이후 UFC 100에서 T.J 그랜트, UFC 114에서 아미르 사둘라, UFC 125에서 네이

트 디아즈를 연파했다.

상대 선수의 약점 복용으로 무효 처리된 UFC 94 카로 파리시안 전(戰)을 제외하고 동양인 최초로 UFC 5연승을 거뒀다. 통산 전적은 14승1무1무효.

상대 콘디트 역시 최근 UFC에서 3연승을 거두며 주가가 오르고 있다. 미국 종합격투단체 WEC 챔피언 출신인 그는 지난 UFC 120에서 뎀 하디를 상대로 '녹아웃 오브 더 나이트(knockout of the night)' 승리를 거머쥐었다. 통산 전적은 26승5패.

김동현이 콘디트를 쓰러뜨린다면 웰터급 타이틀전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

김대환 UFC 전문 해설위원은 "콘디트는 김동현이 여태까지 상대해 온 선수들보다 경험, 타격, 그라운드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승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경기는 스포츠전문채널인 수퍼액션이 오전 9시30분부터 생중계한다.

이 경기는 스포츠전문채널인 수퍼액션이 오전 9시30분부터 생중계한다.

이 경기는 스포츠전문채널인 수퍼액션이 오전 9시30분부터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